

## 에딘버러의 생태관광<sup>1)</sup>

조 덕 현<sup>2)</sup>

우석대학교 대체의학과

### 에딘버러의 생태관광 웨스티벌

국제균학회(IMC-9 : International Mycological Congress-9)가 2010년 8월 1일부터 8월 7일 까지 영국의 에딘버러(Edinburgh)에서 개최 하기 때문에 나는 정 연구원과 함께 참가하게 되었다. 사전등록을 하면 보통 관례상 등록비를 깎아 주므로 작년 12월에 사전 등록 하였는데 자꾸 연장되는 것을 보면서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세상은 세계 공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논문도 한편만 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버섯 데이터베이스 논문은 뺄 수밖에 없었다. 보통 등록을 하면 발표는 자유스럽게 몇 편이고 하는 것이 관례인데 무척이나 까다로웠다. 선진국이라고 유세를 부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번에는 신중 발표와 네스(Ness) 호수의 괴물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위안을 삼았다. 1900년대에 처음 영국에 갔을 때는 인버네스(Inver-Ness)까지는 갔지만 네스호수를 못보고 스카이 섬만 보았기 때문이다.

7월 31일 인천국제 공항까지는 사위가 차로 태워다 주어서 수월하게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고속버스터미널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타는 데까지 여

행용 가방을 끌고 가야 했기 때문이다. 13시 30분에 인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황해로 빠져서 북쪽으로 몽고(울란바르트)의 상공을 거쳐서 시베리아의 파리라 불리우는 이루츠크 상공, 타슈켄트 상공, 모스크바 상공, 덴마크의 코펜하겐 상공을 거쳐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였다. 비행기들은 대체로 공항이 있는 항로를 따라 비행하는 것 같았다. 그래야 사고가 났을 때 근처의 공항에 착륙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11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았다. 에딘버러까지는 저가 항공기로 갈아타고, 에딘버러공항에서 버스로 숙소인 ibis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영국은 층수를 나타내는 데 우리와 다르게 맨 밑층은 층수가 없고 우리가 2층이라 하는 것이 영국에서는 1층이다. 1990년대에 옥스워드(Oxford)의 백화점에 들렀을 때 화장실 물으니 2층이라 해서 우리 개념으로 2층에 가니 화장실이 없는 것이어서 애를 먹은 적이 있다. 방은 2층을 배정 받았는데 (우리식은 3층) 미로를 연상할 정도로 꼬불꼬불하여 처음에는 찾기가 어려웠다. 흔히 영국을 바꾸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라는 말답게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호텔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같으면 현대식으로 멋있게

1)Ecological Tour of Edinburgh

2)CHO, Duck Hyun, Woosuk University; E-mail: chodh4512@hanmail.net

지었을 텐데 말이다.

에딘버러(Edinburgh)는 스코틀랜드의 수도로 정치 문화의 중심지다. 잉글랜드와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왕권 쟁탈전등 견원지간의 사이로 애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화폐도 발행하고 있는 곳이다. 스코틀랜드는 흔히 하이랜드(High Land)로 부르는데 스코틀랜드 북부에 걸쳐 있는 광대한 지역으로 글렌(Glen)이라고 부르는 협곡과 로크(Loch)의 호수지방, 빙하로 생긴 복잡한 해안선이 만들어 낸 풍경, 네스의 괴물로 유명한 네스호수, 영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한다는 스카이섬 등을 통틀어 말한다. 빙하가 북쪽부터 남쪽으로 비스듬히 흘러 나가서 만들어 저서 스코틀랜드는 높은 지대로 되고 잉글랜드는 낮은 지대로 지형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선 기차도 하이랜드(HighLand), 기차여행도 하이랜드라 부르고 있으며 이것을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에딘버러는 고대에서부터 군사 요충지로서 요새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7세기경 잉글랜드가 에딘버러와 그 일대를 점령하고 에이든-버르(Eiden-burh)에 요새를 쌓았다. 10세기에 이르러 스코틀랜드가 에딘버러를 탈환하였고 11세기에 에든버러 성을 축조하였다. 잿빛의 우중충한 벽돌로 높이 쌓여진 이곳은 한 때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던 곳이며, 현재에도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다. 성 내부에는 스코틀랜드 왕가의 보물들을 전시해 놓은 전시관과 성 마가렛 예배당이 있다. 에딘버러시는 에딘버러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배치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 보든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에딘버러성이고 에딘버러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에딘버러성에서 에딘버러시를 한눈에 내려

다 볼 수가 있으며 서쪽에 서있는 바위산 캐슬락(Castle Rock)은 성이 지어지기 전부터 천연의 요새로 이용되었다. 성은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파괴되었고 그때마다 재건과 증축 개축이 반복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최고의 건물은 성마가렛 예배당(St.Margarets Chaple), 1110년에 지어진 이 예배당은 노르만디 양식의 아치가 인상적이다. 성안의 유명한 크라운 스퀘어(Crown Square)는 주변에 있으며 전몰자 기념관과 르네상스기에 지은 그레이트 홀, 왕궁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그중에서도 왕궁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슈튜어트가 스코틀랜드왕 제임스6세(잉글랜드 왕 제임스제임스1세)를 낳은 메리 여왕의 방이 있으며 스코틀랜드왕의 즉위식 때 사용하던 보기(寶器)와 운명의 돌등이 놓여 있는 곳이다. 보기란 왕관이나, 검, 왕홀(王笏)을 가르키며 1707년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에 연합조약을 맺은 이래 계속 봉인되다가 월터 스콧에 의하여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또 운명의 돌은 고대로부터 스코틀랜드의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앉았든 돌이다. 잉글랜드왕 에드워드 1세가 잉글랜드에 가져가서 런던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보관했다가 1996년 스코틀랜드에 반환되었다. 성의 입구에 있는 광장에서 웨스티벌기간 중에 밀리터리 타투라고 불리우는 퍼포먼스 이벤트가 매일 밤 열린다.

8월 1일 가이드가 우리를 에딘버러성으로 안내하는데 자기는 동유럽을 거쳐 선교하러 이곳에 왔다고 하지만 민박도 하고 에딘버러에서 생활근거지를 이루고 있었다. 아침 7시가 못 되어 식당으로 내려가니 벌써 우리 일행의 일부도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어제는 먼 길을 달려와서 피곤도 하겠지만 시차 때문에 밤잠을 설치서 새벽에 이 근방을 산책하였다고 한다. 어제 저녁 식사는 각자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식사

한 분이 없어서 일찍 식사하러 온 것 같았다. 식사 메뉴는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먹어본 것 중에서 약간 뒤떨어지는 같았다. 이것은 어쩔 영국의 검소한 생활 문화에서 오는 지도 모른다.

아침을 먹고 가이드를 따라 에딘버러성으로 갔다. 거의 20년 전에 레딩대학(Reading University)에 방문 교수로 올 때에 정 연구원과 함께 이 거리에서 컵도 사고 에딘버러성을 관광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겨울이어서 눈이 여기 저기 있었고 사람이 많지도 않은 거리였다. 그 당시에 비하여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하기사 20년이면 강산이 2번이나 변하는 시간이 아닌가. 성 앞은 에덴버러 축제의 하이라이트인ミリ타리 타투(Military Tattoo)를 관람하기 위한 객석이 좌우앞으로 설치되어 있다. 낮에는 이 광장까지 씨티투어버스(City Tour Bus)가 들어오고 있었다. 이 성은 성문이 영화에서 흔히 보듯이 성 앞에 수로를 만들어 적이 쳐들어오면 수로의 다리를 들어 올리면 도저히 적은 더 이상 쳐들어 올 수 없는 다리다. 물론 지금은 완전히 폐쇄된 다리지만, 가이드를 따라가면서 설명을 들었지만 모든 것이 기억의 저편에서 아물 아물 거릴 뿐 생각이 도무지 피어나지 않는다. 가이드의 말대로 잉글랜드와 스코트랜드의 오랜 운명의 역사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성이다. 두 나라의 오랜 왕권 투쟁의 역사를 품고 있는 성이다. 이번에 나는 관광을 하면서 특히 지하 감옥의 죄수들을 감금하던 곳을 유심히 보았다 어린아이의 요람 같은 흔들이 그네를 만들어서 거기에 죄수를 감금한 것을 보니 옛날의 죄수 생활은 어떠했을 가가 궁금해진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쓸쓸하기 짝이 없어서 관광객이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인

탓도 있었겠지만 격세지감이 든다. 아직 학회 전야제인 개막 세리머니(Open Ceremony) 시간까지는 시간이 남아서 씨티투어를 하기로 하고 표를 샀다 표의 유효기간은 24시간(14파운드)여서 내일 오전까지 투어가 가능하다. 투어버스가 학회등록 장소까지 가는 줄 알고 탔다. 투어 가이드는 정말 설새없이 종착지로 돌아올 때까지 설명하는 데 놀랐다. 도대체 그 정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이다. 에딘버러의 날씨를 해가 나다가 비가 오고 어느새 흐려서 비가 뿌려지고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기후다. 생전 처음 버스투어를 하면서 에딘버러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 다시 가보면 또 생소할 것이다. 하여간 버스투어가 끝나고 시간 여유가 있어서 호텔에서 쉬었다. 걸어서 등록 장소인 전야제 장소로 갔다. 개막 세리머니 장소인 어셔(Usher)홀에는 이미 특별 강연이 시작되고 강연의 내용은 균학의 발전과 균류의 진화에 대한 여러 강연이 있었다. 강연은 너무 지루 하였다. 강연에서 인상적인 것은 스코틀랜드에서 하는 국제회의인지라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기들 고유 의상인 치마를 입고 강연을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었다. 등록 장소로 이동하여 등록을 마치고 간단한 환영 리셉션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다녀 본 것 중 가장 간단한 것이었다. 와인과 안주가 전부다. 세리머니 리셉션이라 한잔 먹고 다행이도 동반자에 대한 차지(charge)는 없었다.

8월 2일 아침은 비가 내려서 추웠다. 오늘은 호텔식당에서 대충 점심식사로 빵을 두어개 준비 했다. 정연구원이 추워서 카시미론 세타를 하나 샀다 영국은 양모의 나라답게 대단히 짠다. 우선 어제 쓰다 남은 시티투어 카드가 있어서 웨슬리(Wesley)역에서 커플 투어를 하기로 하였다 물론 어제의 코스와는 다른 코스로 움직이는 투어 버스다.

1시간 정도 투어하니 출발지에 도착 버스투어 출발지와 종착지가 같았다. 그래도 티켓 시간이 남아서 또 다른 코스의 버스 시티투어를 하다가 에딘버러성에서 내렸다. 지금까지 영화나 TV에서 보던 버스 시티투어는 실컷 한 셈이다. 이제 걸어서 학회장으로 이동하여 포스터 발표도 보고 홀 전시장에서 버섯 그림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정말 실물과 똑 같았다. 정말 실감나게 잘 그렸다. 사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다. 버섯 달력도 좋았고, 그림에 대해서 물어보니 그린 사람은 화가로 40년간을 그렸다고 한다. 버섯 모양의 도자기를 구웠는데 버섯모양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주발버섯모양이 인상적이었다. 버섯 사진전시에서는 버섯인지 추상화인지 구별 안되는 정말 전문가가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진들은 내 마음을 사로 잡았다. 또 곱팡이로 다양하게 지갑, 핸드백, 화장케이스, 접시 등에 문양을 수놓은 것인데 정교하기가 짝이 없었다. 포 임캐쳐로 일기장을 만들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라고 전시와 판매를 하는 데 직접 사람이 백파이어 모양으로 해서 선전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광버섯의 발광과 포자문의 발광을 사진으로 찍어서 파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느낀 것은 항상 내가 박물관을 하게 되면 해보고 싶은 것들이 벌써 이곳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사실 나도 포자 모양을 도자기에 문양을 넣는 것은 많이 생각했지만 버섯모양의 접시모양을 만들려는 생각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특히 여인들의 물건에 문양으로 곱팡이의 섬세한 모양을 문양으로 넣는 것 등은 역시 아이디어가 빛나는 것들이었다. 버섯으로 추상화적인 사진으로 찍은 것 등은 정말 대단한 발상이다. 지금 우리는 버섯산업이 먹는 식재료로서 승부를 하려고 하는 데 나는 항상 이제는 버섯을 이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제2, 제3의 작품으로 개발되

어야 버섯산업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 오고 있다. 점심으로 햄버거, 샌드위치가 나왔다, 봉투에 넣어서 자유롭게 필요한 양만큼 가져 가도록 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자국에서 열리는 각종 버섯소식을 전하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2012년 상해서 열리는 식용버섯페스티벌, 다음 국제균학회(IMC-10)가 열리는 태국등이 벌써 홍보에 열심이다. 균학회의 단체사진을 찍고 우리는 칼튼 힐(Calton Hill)로 가기 위하여 다시 에딘버러성으로 왔다. 여기는 모든 것이 에딘버러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았다. 에딘버러성을 중심으로 도로며, 건물이며 모든 것이 에딘버러성이 그중심에 있다.

칼튼힐(Calton Hill)을 구경하러 갔다. 칼튼힐(Calton Hill)은 뉴타운의 동쪽에 있는 조금 높은 언덕으로 칼튼힐은 에딘버러성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다. 언덕의 중앙에 우뚝서 있는 넬슨 기념탑은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 1815년에 세운 기념비다. 143층의 계단을 올라간 정상에는 에딘버러시내는 물론 포스만까지 내려다 볼 수가 있다. 이외에도 칼튼힐에는 구천문대(Old Observatory)와 모뉴먼트(National Monument) 등 기념탑이 있다. 내셔널 모뉴먼트는 북쪽의 아테네라 불리우는 에딘버러에 어울리게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흉내 내어 나포레옹 전쟁 전몰자를 기념하기 위해 지었다. 현재는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다. 에딘버러시는 인구 30만 정도의 중소도시로 웬만한 곳은 걸어도 30분이면 도달한다. 언덕에는 그 유명한 로마식 신전의 모양이 건축되어 있었다. 사실 에딘버러성보다 훨씬 시원스럽고 가슴이 탁 트이는 곳이다. 이곳도 구경거리가 꽤나 있었다. 넬슨탑이며 하여튼 이곳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풍광과 뒤에 우뚝 솟아 있는 홀리루드공원을 보

면서 망중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오는 길도 알았고 하여 정말 야경을 보러 오기 위하여 호텔로 돌아왔다. 너무 추워서 나도 스웨터를 사 입고 야경을 보러 칼튼힐로 갔지만 해는 떨어질 생각을 안 하니 하염없이 해떨어지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다. 야경을 보기는 글렀다 싶어 호텔로 오면서 에딘버러 거리의 Fringe 구경을 하였다. 이들 축제는 우리가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데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웃고 즐기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출연자도 대개 한사람(mono)이 거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꾸역꾸역 모여든다. 물론 모노 출연자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그리고 보조 요원으로 관객을 불러서 하므로 그야말로 모노 출연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웃고 즐기고 박수 치고 한다. 물론 끝나면 구경꾼들은 동전을 던져준다 얼마나 돈이 모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들은 열심히 공연을 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사당패 같은 놀이를 한다면 사람들이 구름때 같이 모여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에딘버러는 밤새도록 축제 Fringe를 치루고 나면 아침에는 청소차가 밤새도록 어지러 놓은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특히 길바닥에 붙은 껌 등 바닥에 단단히 붙은 쓰레기들을 강력한 물호스로 말끔히 청소를 해서 오늘도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 그렇게 되니 어제 저녁 무슨 축제 놀이가 있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가로등에 붙은 선전 포스터를 보면 어제와는 다른 포스터가 붙어 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하여튼 선전반, 축제반, 각양각색의 놀이가 시작된다.

그런가 하면 웅장한 성당을 들어가면 바깥 세계와는 전연 다른 장엄한 성가가 파이프 울간에서 흘러 나오므로 잠시나마 신의 앞으로 나가는 기분이다. 예수님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성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사람, 성화를 카메라에 담는 사람, 그러나 이곳만은 바깥 풍경과는 전혀 다른 경건함이 고요히 흐르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헌신적인 봉사를 함으로서 이곳을 찾은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하게 되나 보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특히 서양의 사람들은 남의 봉사에 대해서 조금이나나마 성의를 베푼다는 것을 알았다.

성당을 나오면 단체들, 개인들의 퍼퍼먼스(Performans)가 여기저기서 행해진다. 마치 무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난장판 같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단체나 개인들의 퍼퍼먼스가 당국에 신청한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후에야 알았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나 순서를 지켜서 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난장판 같지만 아무런 탈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장소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에딘버러성 다음으로 유명한 곳이 홀리루드 하우스궁전(The Palace of Holyroodhouse)로 지금도 스코틀랜드의 영국 황실궁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왕실가족이 스코틀랜드를 방문할 때는 이곳에 머문다. 궁전은 화려하며 그중에서도 그레이트 갤러리에 있는 89명의 역대 스코틀랜드왕의 초상화는 유명하다. 이 궁전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에 얽힌 에피소드가 수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메리는 에딘버러성보다 홀리루드하우스 궁전을 좋아했으며 첫 남편 인 프랑스 왕 프랑소와 2세가 죽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6년 동안 이곳에서 지냈다. 메리의 방은 서쪽의 탑에 있다.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인 단리가 질투심 때문에 메리의 비서였던 리치오를 찔러 죽인 사건이 일어난 것도 이 서쪽 탑이다. 이 사건으로 임신 중이던 메리는 유산하고 그 후 무사히 태어난 아이가 훗날 제임

스6세(잉글랜드왕 제임스1세)다.

홀리루드공원은 홀리루드하우스 궁정 길 건너편에 있는 공원으로 관광지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는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곳이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나와 정 연구원이 처음 이 공원을 올라 갔을지도 모른다. 관광 책자에는 등산을 해야 하기 때문인지 소개가 안 되는 곳이지만 이 공원이야 말로 나는 에딘버러를 찾는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곳이다. 올라가는 길은 산의 가장자리로 나선형으로 되었으며 약간 비탈진 길이지만 그리 힘들이지 않고 올라 갈 수가 있다. 연인과 함께 올라간다면 서로 함을 부추기면서 오를 수 있는 멋진 등산로다. 실제로 이곳 주민들이 연인, 친구, 가족 단위의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등산로 옆의 깎아 지른 듯한 절벽은 금방 허물어 질 것 같은 아슬아슬함이 심장을 서늘하게 한다. 그러니 연끼리라면 얼마나 스릴이 있겠는가 또 그 앞의 더 높은 산으로 가기 싫으면 이 등산로를 돌아서 산의 정상에서 에딘버러시를 굽어보는 것은 장관이다. 바로 앞에 에딘버러성이 있고 오른쪽에 칼튼힐이 있고, 스코트 기념탑, 그 너머로 바다가 펼쳐진 모습은 에딘버러성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또 다른 에딘버러를 느끼게 하는 곳이다. 정상에는 안전 요원인 경찰이 절벽으로 등산객이 떨어질까봐 지키고 있다. 특히 사진을 찍으려고 자기도 모른 사이에 뒤로 물러서다가 절벽으로 떨어질까봐 감시하고 있었다. 역시 영국다운 발상이다. 국민의 안전이 중한 것을 제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민중의 지팡인 경찰이 할 일이 무엇이가를 알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위험지역에 경찰이 도와주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백두산(장백산)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초원지대처럼 되어 있어서 백두산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바람이

예외 없이 세차게 불고 그런 억새풀의 숲속에서 젊은 남녀의 포옹하는 장면은 한 폭의 그림이랄까,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억새 풀밭의 오솔 길을 따라 내려오면 홀리루드하우스 궁정이 딱 버티고 있다. 이산의 앞에 있는 더 높은 사에 못 올라가본 것이 못내 후회로 남는다.

에딘버러는 역사적 건물이 많이 몰려있는 오울드타운과 18세기 이후에 계획적으로 조성된 뉴타운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록되어 있는 거리다. 언덕위에서 있는 성과 거리 여기저기에 있는 모뉴먼트 등은 각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서 북쪽의 아테네라고도 불리운다. 또한 세계 제일의 페스티벌 도시로도 유명하며 여름의 8월에 열리는 국제페스티벌과 연말연시의 에딘버러 호그마니가 개최될 때에는 전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온다.

에딘버러는 자연 그대로 그리고 옛날에 만들어진 건물 그대로를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생태관광도시다. 낡았다고 페인트칠을 다시 한다거나 쓸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건축하는 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유명하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네 시골로 타임머신을 하는 것 같이 별로 볼품없는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그 끝에는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파는 진열장이 있게 마련이다. 작은 도시인만큼 발품을 조금난 판다면 오히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저기서 관광객 가이드가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일행에 흡수되어 걸어보는 것도 재미가 쏠쏠하다. 왜냐하면 처음 간 사람은 어디가 유명하고 가볼만 곳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휩쓸리면 볼 것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반드시 무슨 볼거리가 있기 때문

에 그들 속에 있는 것도 재미를 한층 복돋운다.

드디어 괴물이 나타난다는 네스호수로 간다. 대형버스가 아니고 중형의 버스여서 한국, 스페인 등 몇 나라 관광객이 혼합하여 네스호수로 출발하였다. 운전수가 가이드를 겸하는데 재미있었던 것은 이 운전수가 만만치 않은 가수인 것이다, 자기가 낸 음반도 가지고 다니면서 틀어 주고 노래도 불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광객과 빨리 친숙하여 재미가 배가 되는 기분이다. 네스호수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도중에 조그만 마을에 정차하였다. 이 조그만 마을에 각종 기념품 가게가 있어서 관광객을 맞고 있었다. 이 마을의 기념품가게는 상상이상으로 물건들이 많았다. 많은 관광버스가 정차하여 잠깐 쉬는 사이에 가게는 상당히 붐볐다. 네스호로가는 도중에 한번은 쉬어가는 정류장인 썸이다. 하이랜드로 가는 가는 데 특징은 아무데나 가게나 기념품가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한 두군데 있는 것 같다. 네스호로 달리다 소변 등이 급한 승객이 있어서 길가에 정차하는 곳이 가끔 있는 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네 같으면 물건 파는 노점상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정차된곳에서 주변경치를 보니 네스호쪽에서 흘러오는 물인지는 몰라도 이미 냇가가 아닌 강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숲 등 그야말로 자연환경이 때문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우리네 같으면 곳곳에 사람 사는 마을이나 집이 있을 텐데 길가 외에는 볼 수가 없었다. 길가에는 목축하는 농부들의 집과 가끔 B&B가 있을 뿐이다. 이곳의 풍경은 백두산의 초원풍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거의 나무는 없고 풀밭과 지의류 같은 것으로 덮여져 새로운 풍경이다. 마침내 네스호수에 도착하였다. 이미 많은 관광버스가 도착하여 있었는데 이미 배를 타고 네스호 구경을 간 것 같았다. 점심을 간

단히 때우고 선착장에서는 백과이어를 부는 학생 같은 사람들이 백과이어를 분다, 물론 돈을 내라는 뜻이다. 나도 동전을 던져주니 같이 사진도 찍도록 허락한다. 그렇다고 선착장이나 주위가 호화스럽게 꾸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어촌의 마을 입구 그대로이다. 특별히 요란스럽게 꾸민 것이 없다. 위쪽에는 요트들이 즐비한데 이들은 갑문식독의 안에 갇힌 물로 되어 있으며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의 갑문이 옆으로 돌면서 요트들이 호수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은 역시 선진국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요트로 네스호수를 구경하는 것이다. 한 시간마다 유람선은 출발하는 데 우리도 유람선을 타고 네스호스를 향해가 시작되었다. 물은 푸른 물인 줄 알았는데 검은 물이다. 이곳에 탄광이 많아서 탄광의 물이 흘러들어온 탓이 아니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람선은 비교적 강가를 한참 가더니 배가 중앙으로 나가드니 방향을 왼쪽으로 돌아서 되돌아오기 시작한다. 물론 강가의 오래된 고성을 보는 즐거움도 잠깐, 약간 실망하였다. 노르웨이의 피요르드 해안선을 보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실망하였다. 그저 네스호수에서 유람선을 탔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네스호를 즐기는 방법에는 유람선, 요트, 빠른 보우트, 수영 등 여러 가지방법이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배안의 선장실 뒤에서 가이드가 괴물사진을 들고 얼마 전에도 나타났다는 등의 허풍스러운 설명을 그치지 않고 사진까지 보여 주면서 설명하므로 어린애는 물론 어른들도 신기하게 놀란 모습으로 열심히 듣고 있었다.

네스호수는 남북 45 km의 가늘고 긴호수로 최대수심은 290 m에 이른다. 이 아름다운 호수에 산다고 전해지는 네시가 발견된 것은 565년 그리스도교 포교를 위해 방문한

성 콜롬바에 의해서다. 성 콜롬바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을 신통력으로 쫓아냈다고 한다. 그 후 1500년에 걸쳐서 목격되고 있는 괴물은 어떤 모습일까. 괴물은 최초 원주민인 고대 픽트인이 남긴 환영일까. 어떤 모습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대체로 공룡을 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기념품 가게에서 공룡이 그려진 컵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공룡이 물속에 사는 것도 있었는지 아직 들은 바는 없다. 네스호수의 입구에 인버네스라는 도시가 있다. 20여년 전 레딩대학에 방문교수로 오는 기회에 인버네스에서 하루 B&B에서 잔적이 있다. 그때 기차가 눈사태로 너무 늦게 도착하여 역에서 가까운 B&B로 가다가 한때의 젊은 이들을 만나서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B&B를 물은 기억이 난다. B&B 들어가니 주인이 늦은 시간인데도 친절하게 맞아 주던 기억이 새롭다.

유람선 관광을 마치고 이제 에딘버러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사실 나는 헤리포터라는 소설도 영화도 보지 못했지만 이곳이 영화를 촬영한 곳이라고 한다. 드넓은 강 같은 냇가, 산사이의 드넓고, 좁은 이곳을 빗자루를 타고 달리는 장면 등을 찍은 곳이다. 도중에 높은 산과 초원 등이 어우러진 곳에 정착하여 주위 풍광을 감상하였다. 정말 사람하나 살지 않는 이 넓은 초원, 산, 냇가 등을 보면서 스코틀랜드가 자랑하는 하이랜드가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았다. 우리네 같으면 차가 정착하는 곳에 많은 가게가 들어서서 관광객들에게 음식, 기념품을 팔 것 같은데 여기는 그 많은 관광버스가 쉬어가는 데 그런 편의 시설하나 없다. 무슨 뜻일까, 오히려 그런 가게들이 있다면 하이랜드의 순수한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이랜드는 물이 좋아서 많은 위스키공장이 들어서 있다. 여기 저기 위스키 공장에

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보면서 과연 위스키의 원산지임을 실감할 수가 있었다. 오는 도중에 화장실 등을 가기 위하여 정착하였는데 그곳에서 나는 이곳을 여행하는 한 가족을 만났다. 자기네는 이곳 스터링대학의 통나무집에서 숙박을 하고 지금 위스키공장을 보러가는 중이란다. 대학의 시설물을 관광객에게 개방하여 대학도 홍보하고 대학의 짝잘한 수익도 올리는 것이다. 관광객도 일반 호텔보다 싸고 운치 있는 대학의 통나무기숙사를 사용함으로써 정말 일석이조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도중에 어느 농장에 들렀는데 이곳에는 아주 귀한 햄스터라는 소 같은 것을 사육하는 데 아주 귀한 소라고 한다. 이곳은 이소가 하이랜드의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관광상품이 되어 반드시 이곳에 정착하여 소도 보고 물건도 사고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고 생태관광이란 어떤 자연적 풍광뿐만 아니라 이세상의 모든 생물자원도 잘만 개발하면 얼든지 관광 자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에딘버러거리 프린지에서 한국에서 온 젊은 개그맨 3명을 만났는데 이곳에서 할 공연 전단지 돌리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꽤 이름이 난 개그맨들이란다. 하지만 이곳 프린지에서 인정만 받는다면 그들은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된다고 한다. 영국의 유명한 코메디겸 배우인 빈 이라는 배우도 여기서 인정받아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다고 한다. 그러니 전 세계의 프린지들이 몰려들어 자기들의 기량을 자랑한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에딘버러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무어냐 무어니 해도 밀리타리 타투(Military Tatro)다.

8월 3주 내내 밤마다 공연 하지만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표구하기가 어렵단다. 다행히도 우리는 가이드가 미리 제일 좋은 자리를 예약하여서 볼 수가 있었다. 어떤 분들

은 미리 한국에서부터 예약을 하고 온 분들도 있었다. 공연 시작 3시간 전에 공연장으로 갔는데 벌써 줄이 거리 먼 곳까지 늘어서 있었다. 그 틈에는 한국에서 이곳에 어학연수를 온 가족단위의 학생을 만났는데 이들도 한국서 온 개그맨을 만났다고 한다. 이들 말로는 한국의 매스컴도 이들을 취재했다고 한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니 추워지기 시작한다. 의자가 쇠붙이어서 매우 차므로 의자에 깔고 앉을 깔개를 빌리고 입장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수용능력이 10,000명 정도다. 입장료가 오늘은 전야제여서 30파운드고 축제가 시작되면 배 이상이라 하는 데 그 입장료 수익만도 어마 어마한 액수가 된다. 밀리타리 타투의 시작은 장엄한 의장대의 입장으로 시작되었다. 불꽃놀이 등 스코틀랜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출하는 것 같았다. 간간이 외국에서 초청받은 팀들의 공연, 그리고 현대풍의 춤, 노래 등으로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식전행사에서 이곳에 관람온 관광객의 나라들이 소개 되어 한껏 흥을 북돋았다. 이런 행사에

언제나 취재진들이 공연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열띤 취재로 앞면을 잘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난타도 이곳에서 공연을 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이 되었다고 한다. 또 한국의 군악대도 초청받아서 이곳에서 공연을 하였다고 한다. 역시 스코틀랜드에 관한 공연이 있을 때가 우렁찬 박수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역시 관람객의 수가 제일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연 내내 에딘버러성의 입구벽면에 타나는 애니메이션의 장엄한 연출은 세계를 하나로, 빈민들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려는 화면은 또한 커다란 불거리의 하나로 관광객을 압도하였다.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교통신호가 있는 곳은 경찰들이 안전을 위하여 일렬로 쭉 서서 통제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 올 수가 있었다.

에딘버러 축제는 문화유산, 이것을 보존하려는 사람,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인류의 집합체라는 생각이 든다. 나아가서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끊임없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에딘버러성



미리타리타투



칼튼힐



백파이어 부는 학생



네스호수



하이랜드